

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중국해양대학교	성명	적청화	학년	3	생년월일	1990년 11월 18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눈 에 거 울
 쟁 그 랑 ! 손 에 주 여 진 거 울 이 땅 에 떨어
 어 저 개 졌 다 . 마 른 하 늘 에 날 버 각 을 맞
 은 듯 이 멍 하 니 서 있 었 다 .
 “ 청 화 야 , 뭐 해 ? 무 슨 일 이 있 니 ? ”
 그 소 리 를 들 은 엄 마 는 급 하 게 내
 방 으 로 들 어 왔 다 .
 “ 엄 마 , 내 얼굴 이 왜 이 래 ? 미 워 죽
 겠 다 . 밖 을 못 나 가 . 사 람 들 이 나 를 비
 웃 단 말 이 야 . 나 이 제 어 똥 게 ... ”
 목 에 이 상 이 생 겨 서 병 원 에 서 치 조 를
 받 았 으 니 주 사 때 문 에 얼굴 이 엄청 심
 하 게 붓 었 다 . 원 개 그 다 지 크 지 많 은
 눈 이 안 보 일 정 도 였 다 . 내 자 신 이 보
 기 에 도 미 운 얼 굴 조 밖 에 나 가 면 이 상
 한 눈 빛 이 하 염 락 이 내 게 쏠 아 질 것 이
 였 다 . 학 교 친 구 들 이 분 명 히 나 를 비 웃
 고 따 돌 린 것 이 다 . 이 런 생 각 이 나 자
 집 나 서 전 대 조 학 교 에 가 지 앎 기 조 결
 심 했 다 . 엄 마 의 끈 질 긴 학 교 에 가 라 는
 명 령 에 도 끝 내 나 가 지 앎 았 다 .
 고 집 센 나 를 그 만 두 고 엄 마 는 의 사
 선 생 님 에 게 전 화 했 다 . 얼 굴 이 붓 어 진 것
 은 주 사 조 인 한 정 상 적 현 상 이 고 며 칠
 이 지 나 면 스 스 조 나 아 질 거 란 말 을

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중국해양대학	성명	적청화	학년	3	생년월일	1990년 11월 18일
----	--------	----	-----	----	---	------	---------------

나 에 게 뚝뚝히 전 해 주 었 다 . 어 마 는 오 늘
 일 단 집 에 서 쉬 고 내 일 꼭 학 교 에 가
 가 는 말 을 하 고 출 근 하 러 급 하 게 나 갔
 다 .
 방 에 혼 자 있 었 다 . 창 문 이 열 려 있 지
 만 가 슴 이 답 답 해 서 숨 을 못 쉴 것 같
 았 다 . 침 대 에 앉 아 있 는 인 형 이 나 보 기
 가 켜 져 있 는 고 개 를 돌 려 앉 아 있
 었 다 . 다들 나 의 이 런 모 습 이 싫 다 는
 생 각 이 오 전 내 내 머릿 속 에 돌 고 있 었
 다 .
 점 심 때 어 마 가 돌 아 왔 다 . 문 을 열 자
 마 자 "우 리 예 뻔 딸 " 을 불렀 다 . 평 소
 에 이 런 말 을 들 고 폴짝 폴짝 뒤 어 가 서
 어 마 를 맞 이 하 는 내 가 왈칵 눈 문 이 나
 왔 다 . 이 제 예 뻔 딸 이 아 니 고 미 운 딸
 이 되 겠 다 는 생 각 이 들 었 기 때 문 에 . 어
 마 가 아 무 려 지 앓 은 듯 이 내 얼굴 에
 눈 물 을 닦 아 주 고 빙 그 레 웃 으 면 서 말
 했 다 .
 "우 리 예 뻔 딸 , 아 직 도 그 거 울 때
 문 에 속 상 하 네 . 어 마 의 눈 을 좀 봐 . 어
 마 에 게 도 거 울 이 있 다 . 바 로 눈 에 있 어 .
 어 디 한 번 찾 아 봐 ."
 고 개 를 들 어 어 마 의 사 랑 스 러 운 눈 빛

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중국해양대학	성명	적청화	학년	3	생년월일	1990년 11월 18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과 마주쳤다. '눈에 거울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 지?' 의문을 가지고 엄마의 눈을 열심히 보더니 저쪽 큰 내 얼굴 밖
에 아무것도 안 보았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용하거나 만난 거울이 많지만 그 중에 정확한 거울이 별로 없다. 벽에 걸려 있는 거울이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울이든 다 외
모만 보는 거울이야. 사람의 속까지 볼 수 있는 거울이야 말로 좋은 거울이다.
그런 거울은 눈에 있다. 예쁜지 미운지 결으로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눈으로 나타나 보는 사람
에게 말해 준다. 내 눈의 너는 여전히
우리 귀엽고 예쁜 딸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알았다. 외모만 보는 거울은 사람이 고운지 미운지 말한 자격이 없고 눈에 있는 거울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라 마음을 보는 거울이야 말로 좋은 거울이요, 우리가 자주 봐야 하는 거울이다.
다시 거울 앞에서 앉아 내 눈을 봤

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중국해양대학교	성명	적청화	학년	3	생년월일	1990년 11월 18일
----	---------	----	-----	----	---	------	---------------

다	,	거	목	에	있	는	나	에	게	환	작	웃	으	면	서
---	---	---	---	---	---	---	---	---	---	---	---	---	---	---	---

인사했다.

"안녕, 예쁜 청화!"